
국립국어원 소식

I.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1.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 1월 21일(금) 오전 11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2011년 1월 23일로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개원 20주년 기념식은 1월 21일(금) 11시,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신항 성균관대학교 명예 교수 등 국어학계 주요 인사 및 김성동, 김성태 국회 의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국어 문화와 국어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은 서정목 서강대학교 교수,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기갑 목포대학교 교수가 수상했고, 국립국어원장 감사패는 이계진 전 국회 의원,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교수 등에게 전달되었다.

아울러, 기념식의 일환으로 개원 40주년인 2031년에 개봉할 ‘국립국어원 기억 상자’를 보관했다. 기억 상자에는 표준국어대사전, 최초 제작한 세종학당 현판 등 국어원의 20년 역사와 직원들의 향후 비전을 담았다. 국어원 직원들이 직접 ‘훈민정음 서문가’를 축가로 부르고, 직원들의 글씨를 모아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거는 등 기념

식에서는 국어원 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2. 부탄 국어발전위원회 국립국어원 방문

부탄 국어발전위원회에서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국어 정책을 이해하는 한편, 국립국어원과의 상호 교류를 협의하였다.

□ 방문 개요

- 일시: 2010. 12. 20.(월) 10:00~15:20
- 장소: 국립국어원
- 방문 내용: 우리나라 국어 정책 업무 이해 및 국립국어원과의 상호 교류 협의.(주요 관심 분야: 국어 발전 및 진흥 관련 업무, 사전 편찬, 과학·의약·미술 분야의 한글 사용 확대, 한글 워드 프로그램 개발 안내)
- 방문자: 다쇼 셰루브 기엘트센(Dasho Sherub Gyeltshen) 부탄 국어발전 위원회 위원장 일행.



<부탄 국어발전위원회의 국립국어원 방문 사진>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1.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월 22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립국어원 20년간의 성과를 성찰하여, 국립국어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총론인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민현식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국어 정책 분야, 공공언어 개선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분야,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소원 서울대학교 교수, 송향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발표자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조남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한재영 한신대학교 교수,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김정숙 고려대학교 교수와 함께 국립국어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2. 국립국어원, EBS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방송

- 지상파로 2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42편(3개 언어 각각 14편) 방송

국립국어원과 EBS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한국어 중급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방송 회면>

이번 방송 프로그램은 2010년도의 초급에 이어지는 중급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원어민이 출연하여 한국어를 함께 학습한다. 다문화 가족 출신국 분포도가 높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언어로 다시 설명함으로써 외국인이 자신의 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수행해온 교재 개발과 초급 방송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방송 프로그램의 기본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로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일상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각각 1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들이 친숙하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전문가인 홍종명 교수(한국외국어대)와 왕단(중국어), 부이티하(베트남어), 자스민(필리핀어) 등 한국어에 능숙한 원어민들이 짹을 이루어 다채롭

게 진행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의 지상파 방송(EBS)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기간: 2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총 14주 방영)

○시간: 매주 월~수(14:50~15:20/30분)

월요일: 중국어/ 화요일: 베트남어/ 수요일: 필리핀어

방송된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다.

(인터넷 주소: <http://home.ebs.co.kr/korean2/index.html>)

3. 국립국어원, 행정 기관 언어 개선에 적극 나서

- 전국 중앙 행정 기관,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원 안내 공문 발송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고려하여 공공 기관의 바른 언어 사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3월 3일 중앙 행정 기관과 광역·기초 지방 자치 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 316기관에 공공 기관 언어 표현 감수 지원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공 기관의 행정 용어를 비롯한 언어 표현 개선에 나섰다.

국립국어원은 행정 기관을 비롯한 공공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정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공공 언어지원단을 설치하고, 2011년 1월까지 총 133건을 감수하였다.

2011년부터는 중앙 행정 기관 및 광역·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국어 책임관과 전국 교육청에 일제히 문서를 발송하여 행정 용어와 정책명, 제도명, 구호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며 각종 문서의 용어와 문장을 검토해 주기로 하였다.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원 요청할 내용

- (1) 행정 용어, 정책(제도)명, 신설 기관(부서)명, 구호 등의 적절성 검토와 대안 제시
- (2) 대외 공문, 보도 자료, 안내문, 공고문 등의 용어, 문장 검토
- (3) 법령·조례,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 등의 용어, 문장 검토
- (4) 그 밖의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표현 검토

□ 요청 방법

- (1)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publang>)
- (2) 공문(수신/참조: 국립국어원장/공공언어지원단장)
- (3) 전화
 - 담당자
 - 학예연구사 김형배(02-2669-9724, hanmal@korea.kr)
 - 학예연구관 김문오(02-2669-9721, mokim@korea.kr)
 - 가나다 전화(1599-9979)
 - 대국민 국어 생활 상담 전화(9시~18시)

□ 참고 사항

- (1) 사안에 따라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음.
- (2)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후에는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검토 요청하기 바람.

국립국어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에 부응하여 각 행정 기관이 지원

을 요청하고 실제 공문서에 반영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국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4-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누리소통망(서비스)’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온라인에서 인적 관계망 형성과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다듬은 말로 ‘누리소통망(서비스)’을 최종 선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433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인맥소통서비스’, 인맥망서비스, 누리소통망(서비스), 누리나눔서비스’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52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인맥소통서비스’는 388명(25%), ‘인맥망서비스’는 167명(10%), ‘누리소통망(서비스)’은 819명(53%), ‘누리나눔서비스’는 149명(9%)이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누리소통망(서비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4-2. ‘오픈마켓(open market)’은 ‘열린장터’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을 이르는 ‘오픈마켓(open market)’의 다듬은 말로 ‘열린장터’를 선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413건 가운데 ‘누리거래터’, 누리

장터, 누리망시장, 열린장터'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50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3. '선루프(sunroof)'는 '지붕·창'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바깥의 빛이나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절할 수 있는 승용차(乘用車)의 지붕'을 이르는 '선루프(sunroof)'의 다듬은 말로 '지붕창'을 선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410건 가운데 '하늘창, 지붕창, 해들창, 햇빛창'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52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4. '슬로시티(slow city)'는 '참살이지역'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 생태 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는 지역민 중심의 공동체'을 이르는 말인 '슬로시티(slow city)'를 갈음할 우리말로 '참살이지역'을 선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397건 가운데 '참살이지역, 여유지역, 참살이공동체, 청정지역'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59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5. '멀티탭(multi-tap)'은 '모둠꽂이'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멀티탭(multi-tap)'의 다듬은 말로 '모둠꽂이'를 최종 선정하였다. '멀티탭(multi-tap)'은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콘센트'를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396건 가운데 '모둠꽂이',

두루꽃이], 전원분배기, 다중전원구'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57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6.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전원주택’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타운하우스(town house)’의 다듬은 말로 ‘공동전원주택’을 최종 선정하였다.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벽을 공유하는 저층 규모의 단독 주택을 수평으로 연립시킨 형태로 각 가구가 개별 정원을 갖는 주택 유형’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418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가로어울주택, 공동전원주택, 한울공동주택, 모둠단독주택’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43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7.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공동할인구매’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의 다듬은 말로 ‘공동할인구매’를 최종 선정하였다.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의 일종’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358건 가운데 ‘누리할인매매, 공동할인구매, 누리어울림매매, 누리공동거래’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44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8. ‘와이파이(Wi-Fi)’는 ‘근거리무선망’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와이파

이(Wi-Fi)'의 다듬은 말로 '근거리무선망'을 최종 선정하였다. '와이파이(Wi-Fi)'는 '무선 인터넷이 개방된 장소에서 무선 접속 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똑똑전화(스마트폰)나 노트북 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의 이용 설비'를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352건 가운데 '근거리무선망, 무선접속망, 무선누리망, 열린누리망'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에는 모두 908명이 참여하였다.

4-9. 'PL(private label)상품'은 '자체기획상품'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PL(private label)상품'의 다듬은 말로 '자체기획상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PL(private label)상품'은 '유통 업체가 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협력 제조 업체에 생산을 위탁해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381건 가운데 '자체기획상품, 자체상표상품, 유통업체기획상품, 유통업체독자상품'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40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10. '스키니진(skinny jeans)'은 '맵시청바지'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허리부터 발목까지 다리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이르는 '스키니진(skinny jeans)'의 다듬은 말로 '맵시청바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367건 가운데 '매끈청바지, 맵시청바지, 몸매청바지, 쫄 청바지'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62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11. ‘론칭쇼(launching show)’는 ‘신제품 발표회’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상표의 공식적인 출시를 알리는 행사’를 뜻하는 말 ‘론칭쇼(launching show)’의 다듬은 말로 ‘신제품 발표회’를 최종 선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527건 가운데 ‘신제품 홍보회’, 신제품 발표회, 신제품 출시회, 출시 발표회’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62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12.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는 ‘악덕소비자’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의 다듬은 말로 ‘악덕소비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는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572건 가운데 ‘악덕소비자, 불량소비자, 악질소비자, 해코지소비자’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64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13.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관광취업’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의 다듬은 말로 ‘관광취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국가 간 비자 협정을 통해 상대국에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670건 가운데 ‘취업여행, 관광취업, 여행자취업, 국

외일자리여행'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74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14.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정보무늬'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QR 코드(Quick Response Code)'의 다듬은 말로 '정보무늬'를 최종 선정하였다. 'QR 코드'는 '격자무늬 그림으로, 많은 정보를 나타내는 2차원 바코드'를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꾼이 제안한 663건 가운데 '정보무늬, 격자무늬부호, 모눈정보무늬, 정보전달그림'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48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4-15. '로하스(LOHAS)'는 '친환경살이'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로하스(LOHAS ·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다듬은 말로 '친환경살이'를 최종 선정하였다. '로하스'는 '건강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로하스'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434건 가운데 '친환경살이, 녹색건강생활, 자연어울살이, 자연친화살이'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모두 1,45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5. 제95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제95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1. 3. 4.)

[인 명]

- 나가스, 미라이 (에일린) Nagasu, Mirai (Aileen) 일본어명: 長洲未來 1993~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 여자 싱글 부문 선수. 미국 출생. 양친은 일본인 이민자.
- 마르텔리, 미셸 Michel Martelly 1961~ 아이티 대중 음악가·사회 활동가·정치가. 2010년 대선 후보.
- 마스토브, 아리엘 Ariel Mastov 별칭 샐도 The Shadow 1975~ 이스라엘 이종 격투기 선수. 우즈베키스탄 출생. 2003년에 미국으로 이주.
- 맥카이, 데이비드 (A. D.) David Mackay 1955~ 오스트레일리아 기업가. 세계적인 시리얼 회사 켈로그(Kellogg) 전 최고 경영자(CEO) (2006. 12.~2011. 1.).
- 마하메드, 마하메드 (압둘라히) Maxamed (Cabduлаahi) Maxa [Mohamed (Abdullahi) Mohamed] 아랍어명: محمد عبد الله محمد 1962~ 소말리아 정치가·외교관. 총리(2010. 10.~).
- 몇타키, 마누체흐르 Manouchehr Mottaki 페르시아어명: منوچهر منکی 1953~ 이란 정치가·외교관. 국회 의원(1980~1984), 주일본 대사(1995~1999), 외교 장관(2005~2010).

- 바키트, 마아루프 Maṣrūf al Bakhit [Marouf al-Bakhit] 아랍어명: عوف البخت 1947~ 요르단 정치가. 총리(2005. 11.~2007. 11., 2011. 2.~). 전 이스라엘 주재 대사.
- 베위뤼넨, 파보 Paavo Väyrynen 1946~ 핀란드 정치가. 무역·개발 장관(2007. 4.~).
- 브레일리, 앤젤라 Angela F. Braly 1962~ 미국 여성 기업인. 웰포인트 (WellPoint) 최고 경영자(2007~).
- 아랍, 칼리드 Chalid Arrab 별칭 디파우스트 Die Faust. 1975~ 독일 킥복싱 선수·이종 격투기 선수. 모로코계.
- 우아타라, 알라산 (드라만) Alassane (Dramane) Ouattara 1942~ 코트디부아르 정치가. 총리(1990~1993).
- 캉토나, 에리크 (다니엘 피에르) Éric (Daniel Pierre) Cantona 1966~ 프랑스 전 축구 선수·영화배우.
- 킬만, 사토 Sato Kilman 바누아투 정치가. 총리(2010. 12.~). 전 부총리 겸 무역 장관.
- 팜꽝응이 Pham Quang Nghi 1949~ 베트남 하노이 시당위원회 서기. 국회 의장(2011. 1.~).

[인 명] -세로 심의

- 바이트만, 엔스 Jens Weidmann 1968~ 독일 경제학자. 독일연방은행(중앙은행) 총재 내정자(2011. 2.).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수석경제 고문(2006~). G20 수뇌 회의 등 메르켈 총리의 개인 대표(Super-Sherpa). 연방은행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ECB) 이사도 겸무.
- 비외른, 토마스 Thomas Bjørn 1971~ 덴마크 프로 골프 선수.
- 시어링, 조지 George Shearing 1919~2011 영국 출신의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1947년 미국에 이주, 1956년 미국 시민권 획득. 히트곡 ‘9월의 비(September in the Rain)’, 대표곡 ‘버드랜드’의 자장가(Lullaby of Birdland)’. 그래미상 두 번 수상(1983, 1984).
- 아이힝거, 베른트 Bernd Eichinger 1949~2011 독일 영화감독 겸 프로듀서. 70년대 중반부터 약 70편의 영화를 제작. 판타지 소설을 영화화한 ‘네버엔딩 스토리’(1984), 나치스 독재자 히틀러(Adolf Hitler)의 인간상을 압축한 ‘히틀러 – 최후의 12일간’(2004) 등.

III.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1.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 과정 개강

- 1월 17일부터 6개월간 방문 교육 지도사 대상 교육 실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들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1월 17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들은 전국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우수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 87명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결혼 이민자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결혼 이민자가 전문 자격(한국어 교원 3급)을 갖춘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과정은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3차로 구성한 오프라인-온라인 통합 교육이다. 1차 교육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1차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3차 교육은 7월 중에 5일간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양성 과정은 국립국어원이 국내 최고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국어 기본법상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수준의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 특히, 1차와 3차의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현재 국내 각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수업을 담당한다.

이 양성 과정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들 중에서 3차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 시험을 통과한 교육 수료자에게는 국립국어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준다. 그리고 수료자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3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양성 과정은 국립국어원과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여전상 체계적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수강하기 어려운 한국어 방문지도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실시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 현장으로 찾아가는 새터민 표준어 교육 과정 제공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의 일환으로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과정을 운영·지원한다. 2011년의 첫 번째 과정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 2동 주민센터(동장 유창기)와 함께 시흥 2동 지역의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과정으로,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주간 현장에 직접 찾아가 강의를 제공한다.(장소: 시흥 2동 교육관, 매주 월요일 19:00~21:00)

□ 남북한 언어 차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

남북한의 언어는 분단 이후 서로 단절되어 사용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남북한의 언어는 방언적인 차이 외에도 남북한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졌다. 흔히 예로 드는 어휘적인 차이 말고도 발음, 억양, 표현, 그리고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의 분야에서도 차이가 많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가 바로 언어 차이에서 오는 차별인데, 새터민의 말투와 발음, 억양, 어휘, 어법 등이 남한 사회에서 차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새터민의 언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 어문 규정, 발음(억양), 어휘(표현) 등 세 분야로 교육 과정 구성

이 과정은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새터민들에게 생소한 어휘와 표현, 그리고 남북한이 달리 쓰는 어문 규정(표기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다.

새터민의 발음과 억양은 표준어와 차이가 있다. 특히 합경도 출신의 새터민들이 사용하는 억센 억양은 남한 사람들에게 화내는 말투로 인식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터민들이 가장 생소하게 느끼고 또 익히기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북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남한의 어휘(외래어 포함)이다. 남북한 사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그 괴리가 커져감에 따라 각자 사용하는 어휘도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생성되어 서로의 어휘를 이해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또한 실제의 말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많다. 남북한의 표기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것이 두음 법칙의 차이에서 오는 표기법의 차이다.(력사/역사, 로동/노동 등) 또한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으므로 ‘깨잎/깻잎, 시내가/시냇가’ 등의 표기가 서로 다르다. 더구나 자음·모음 글자의 배열이 서로 달라 사전을 찾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게 된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

구분	북한	남한
어휘	남새, 게사니, 마사지다, 벤지다	채소, 거위, 부서지다, 거르다
	가락지빵, 단물, 설기과자	도넛, 주스, 카스텔라
	(북한에만 있는 단어) 속도전떡, 밥공장, 기두녀성 등	(남한에만 있는 단어) 신세대, 동아리, 효도관광, 포인트 적립
	꼴/꼴, 신친/신촌, 영희/용희	북한의 ‘-/T, ㅓ/ㅗ’는 남한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들려서 구별 어려움.
표현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면목이 있다.	안면이 있다.
	꼴이 아프다 / 꼴이 좋다	머리(꼴치)가 아프다 / 머리가 좋다
어문 규정	녀성, 락성대, 량심, 리용 / 육체 로동, 감언리설, 철도료금 / 비률,	여성, 낙성대, 양심, 이용 / 육체 노동, 감언이설, 철도 요금 /

	규률	비율, 규율
	바다가, 저가락, 내물, 나무잎, 초 불	바닷가, 절가락, 넷물, 나뭇잎, 촛불
	이발, 눈썹, 손뼉, 잠깐/ 조각, 원 쑤	이빨, 눈썹, 손뼉, 잠깐/ 조각, 원수
	⇒ {기다, 개다, 되다, 희다, 하다} + ‘-어’ 혹은 ‘-었다’	
	⇒기여, 개여, 되였다, 희였다, 하 였다	⇒기어, 개어, 되었다, 희었다, 하였다
	땅크, 빼스, 마라손, 웨남	탱크, 버스, 마라톤, 베트남
	순서: 나비- 사랑 - 자랑 - 회의 - 꿩 - 아버지	순서: 꿩 - 나비 - 사랑 - 아버 지 - 자랑 - 회의

이와 같이 발음과 어휘, 그리고 어문 규정 분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또 남한의 표준어를 익히게 하기 위해 이번 과정을 계획하게 되었다.

□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도 강사로 참여

특히 이번 과정에는 tbs 교통방송(대표 이준호)의 아나운서가 직접 새터민들의 발음을 교정해 주는 강좌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교통방송에서는 새터민들이 남한의 언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방송 아카데미 등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을 대상으로 발음·발성을 교육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부장급 아나운서가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새터민의 발음을 교정해 주는 등 새터민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3. 2011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

3-1. 2011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 2011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디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지하철 5호선 종점 방
 화역 2번 출구에서 3분 거리)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1년 상반기)

- 3월 1기: 2011. 3. 7.(월)~3. 11.(금)
- 3월 2기: 2011. 3. 14.(월)~3. 18.(금)
- 4월 1기: 2011. 4. 11.(월)~4. 15.(금)
- 4월 2기: 2011. 4. 18.(월)~4. 22.(금)
- 5월 1기: 2011. 5. 16.(월)~5. 20.(금)
- 5월 2기: 2011. 5. 23.(월)~5. 27.(금)
- 6월 1기: 2011. 6. 13.(월)~6. 17.(금)
- 6월 2기: 2011. 6. 20.(월)~6. 24.(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 117,5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17,500원)

3-2. 2011년 상반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신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어원 안에서 시행하는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 도시, 낙도, 벽지를 가리지 않고 무료로 국어 전문가들이 찾아가 여러분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문 강의를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개최 기간: 2011년 상반기(1월~6월)
- 신청 지역: 전국
- 수강 인원: 1회에 30명 이상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에 따른 경비는 모두 국립국어원이 부담
 - 교재: 무료 제공(인원수에 맞게 신청 바람)
 - 강사료, 교통비 등 모든 경비는 국어원이 부담
- 개최 장소: 해당 지역 소재 공공 장소(강의실, 강당, 구민 회관 등) 활용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국어문화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 연락처: 02-2669-9752,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3-3. 제4기 언론·출판인 특별과정 개설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제4기 언론·출판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 과정 개요
 - 과정명: 교정·교열의 원칙과 실제
 - 내용: 교열의 기초가 되는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어휘 교열의 원칙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교육 과정
 - 기간: 2011. 2. 23.(수)~2. 24.(목) ※2일간 총 12시간(비합숙)
 - 장소: 국립국어원 중1층 강의실

○ 교과목 및 시간표

날짜/시간	09:20~09:30	09:30~12:30	13:30~16:30	
제1일 2월 23일 (수)	임교식 (~09:30)	한글 맞춤법과 표 준어 규정 (강의, 실습)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 기법	
		박종덕 (국립국어원 국어 문화학교 강의 교 수)	김주미 (국립국어원 국어 문화학교 강의 교 수)	
제2일 2월 24일 (목)		띄어쓰기	어휘 교열	수료식 (16:40~)
		이운영(국립국어 원 학예연구관)	여규병(동아일보 콘텐츠연구팀장)	

○ 신청 대상: 언론·출판인·방송인(정원 40명)

○ 교육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정원 초과 시 선착순으로 마감하되 기관별 인원 안배
- 대상자 확정 통보: 2011. 2. 15.(화) 예정
- 교육비: 5만 원(확정 통보 시 교육비 입금 방법 별도 안내)
- 위치, 교통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www.korean.go.kr)-교육 자료-참

고 자료 참조

- 안내: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02-2669-9662, 9752, 9733)

3-4. 2011년 3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 2011년 3월(제239기, 제240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39기, 제240기

나. 교육 기간

- 제239기: 2011년 3월 7일(월)~3월 11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40기: 2011년 3월 13일(월)~3월 18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17,5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17,500원

4. 국립국어원 제3기 국외 통신원 모집 결과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와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양한 국외 언어 정책 동향과 한국어 교육 현황 소식을 전할 국립국어원 제3기 국외 통신원을 모집했습니다. 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정과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신 모든 지원자께 감사드립니다.

신진세(인도네시아), 신의선(중국), 안선영(대만), 강의현(몽골)
최수경(영국), 박지수(미국), 전율아(브라질)

